

수능 만점을 향한

비문학 워크시트



《고교독서평설》의 읽기 자료를 활용한
비문학 문제를 풀면서 수능 국어 영역 실전에 대비하세요.

차례

- 2 인문·예술
허황옥, 가야의 왕비가 되다
- 4 사회·문화
금융, 그 거대함에 관하여
- 7 과학·기술
차이에 적응하기
- 9 정답 및 해설

워크시트 활용법

1. 해당 코너를 꼼꼼히 읽고 내용을 숙지한다.
2. 코너 하단의 QR코드로 문제를 내려받는다.
3. 본문을 재구성한 문제를 풀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
4. 채점한 뒤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복습한다.

허황옥, 가야의 왕비가 되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락국의 수로왕과 아유타국의 허황옥 공주가 결혼한 이야기는 재미있는 ㉠신화다. 신화는 일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전부 실제 사건은 아니다. 아유타국은 힌두교의 신화를 ㉡노래한 서사시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성스러운 도시 아요디아(Ayodhya)의 음차(한자의 음을 빌려 우리말로 표기하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실존하는 지역이 아닌 것이다. 인도 북부에 아요디아라는 도시가 있긴 하지만, 인도의 아요디아는 5~6세기 무렵에 그 이름이 붙었고, 이전까지는 사케타(Saketa)로 불렸다.

허황옥 신화는 사소한 부분도 매우 구체적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상세한 각 부분은 알고 보면 다른 기록에서 가져온 내용일 때가 많다. 수로왕의 신하들이 ‘목련으로 만든 키와 계수나무로 만든 노를 갖춘 배’로 허황옥에게 다가갔다는 내용은 중국 전국시대 유명한 시인인 굴원이 쓴 『초사』에 나오는 것으로, 중국 전설 속 인물 상군이 상부인을 맞이하는 순간을 표현한 구절에서 따왔다. 수로왕이 허황옥의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난초로 만든 음료와 혜초로 만든 술’에 등장하는 난초와 혜초 역시 중국 고대에 구혼하면서 따던 풀이다.

허황옥과 함께 왔다는 파사석탑은 어찌 된 일일까? 파사석탑에 관해서는 『삼국유사』 제3권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 현재는 허황옥의 능 옆에 놓인 파사석탑은 본래 다른 위치에 있었다. 조선 고종 때 김해부사가 호계사라는 절에 있던 파사석탑을 지금 위치로 옮겨 놓은 것이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은 파사석탑을 이루는 돌이 우리나라 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말은 신뢰할 근거가 없다. 게다가 이 당시 인도에는 불탑이라고 부를 만한 돌탑이 없었다. 탑에 사리나 경전 등 부장품을 넣어 일종의 무덤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파사석탑은 이에 맞지도 않고, 저렇게 만들어진 탑을 출렁거리는 배에 싣고 왔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허황옥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들어서다. 허황옥의 능이 구체적으로 지목되는 일이나, 허황옥이 허씨의 시조로 비정(比定)되는 일이 모두 조선시대에 일어났다. 조선시대에 경상도관찰사를 지낸 허적은 수로왕릉과 허황옥의 능을 크게 보수하며 ‘허황옥이 열 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 두 사람에게 허씨 성을 하사했다’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몇 년 뒤 허적의 친척 허목이 쓴 『양천 허씨 족보서』에 나오는 시조는 허황옥이 아닌 고려 개국공신 허선문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허황옥 설화와 관련해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열리곤 한다. ‘차는 허황옥과 함께 한반도에 처음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차문화의 발상지는 중국이며, 인도의 차문화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한 이후에 정착한 것이다. 이 가설에 대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자 ‘허황옥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차를 가지고 한반도로 왔다’는 말까지 나왔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아유타국은 실존하지 않는 지역이다.
- ② 파사석탑을 이루는 돌은 우리나라 돌이 아니다.
- ③ 고대 인도에서는 탑을 무덤으로 사용했다.
- ④ 『양천 허씨 족보서』에 따르면 양천 허씨의 시조는 허황옥이 아니다.
- ⑤ 인도보다 중국에서 먼저 차문화가 정착했다.

2 ㉠에 관해 적절하게 이해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민지: 신화는 모두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져 있으니 외워 두면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겠어.

의정: 신화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구나.

효령: 세월을 거치며 사람들은 신화의 사실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기도 해.

규리: 신화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는 그 근거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 ① 민지, 의정 ② 의정, 효령 ③ 의정, 규리 ④ 민지, 의정, 규리 ⑤ 의정, 효령, 규리

3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② 산새가 즐거이 노래하는 아침이었다.
- ③ 그의 시는 자유를 노래한 것으로 유명하다.
- ④ 생일선물로 운동화를 노래하기에 꼭 사 주기로 약속했다.
- ⑤ 임금의 덕을 노래하는 소리가 마을을 울렸다.

금융, 그 거대함에 관하여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중세시대 화폐는 대부분 금 아니면 은으로 만들었다. 화폐의 양이 늘고 이를 모은 부자들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양의 금화와 은화를 보관하기 힘든 부자들이 생겼다. 이때 등장한 이들이 ‘골드스미스’(goldsmith), 우리말로 번역하면 금세공인(金細工人)쯤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원래 금을 가공해 각종 금제품을 만들었지만, 점차 부자들에게 보관료를 받고 금괴와 금화를 보관해 주는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골드스미스는 돈을 맡긴 이들에게 종이쪽지 한 장을 적어 준다. ‘윌리엄 공이 우리 보관소에 금화 10만 냥을 맡겼고 이 종이는 그 증표이니, 이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10만 냥을 내드립니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돈을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다. 그 당시에는 이를 ‘골드스미스노트’(goldsmith note)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지폐의 출발점이다. 종이쪽지 한 장이 금화 10만 냥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막대한 금화를 보관해 주던 골드스미스들의 머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어차피 보관하는 저 금화, 저걸 누구에게라도 빌려주면 이자를 잔뜩 받을 수 있을 텐데...’ 골드스미스들은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 사업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린 골드스미스들은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아 낼 필요성을 느꼈다. 이들은 부자들을 찾아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보관료를 내고 금화를 맡겼지만,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자를 드릴 테니 우리에게 돈을 맡겨 주십시오.’

그렇게 이자를 물어도 골드스미스들에게는 남는 장사였다. 맡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써 골드스미스가 지급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이자를 채무자에게 받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예금과 대출의 상관관계가 분명해졌다. 이것이 바로 은행의 기원이다. 이 무렵부터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금융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다. 돈이 남는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그 돈을 다시 빌려주는 대출로 돈을 번다. 자동차도 반도체도 만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돈을 이리저리 ㉠굴려 돈을 버는 사업이 시작됐다.

(나)

알다시피 영국은 식민지배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다. 식민지를 약탈하기 위해선 거대한 배를 운용해야 하는데, 커다란 배 한 척을 띄우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든다. 영국의 은행가들은 이때 선주(船主)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다.

주식거래도 이 무렵 시작됐다. 한 사람이 전 재산을 투자해 배를 띄웠다가 배가 침몰하거나 해적들에게 약탈이라도 당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투자자를 여럿 모아 공동의 재산으로 배를 만든 뒤, 위험도 나누고 수익도 나눈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출발점이다. 출항한 배에 문제가 생기면 큰 손실을 겪는 선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보험도 탄생했다. 선주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받은 뒤 배가 온전

히 돌아오지 못하면 손실을 메워 주고, 배가 무사히 돌아오면 그 돈을 그냥 갖는 식의 보험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공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금융업은 더 막강해졌다. 기업은 돈을 빌려 사업에 나서려 했고, 그 돈을 주고 있는 곳은 은행이었으니 말이다. 전쟁에 필요한 나랏돈도 금융으로 마련했다. 당장 전쟁 자금이 필요한 강대국들은 정부가 나서서 국채라는 것을 찍었다. 국채란 정부가 돈을 빌린 증서다. 이 돈을 누가 빌려줬느냐? 당연히 거대 은행들이었다. 은행들은 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뒤 그 나라 정책에까지 이래라저래라 간여했다. 20세기 이후 금융은 더 이상 하나의 평범한 산업이 아니게 되었다. 제조업·정부·서민의 삶을 모조리 틀어쥐고, 감당이 어려울 정도의 괴물로 거듭난 것이다.

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골드스미스는 막대한 양의 금화를 보관하기 힘든 부자들을 일컫던 말이다.
- ② 지폐는 사람들이 골드스미스에게 돈과 함께 맡긴 종이쪽지에서 비롯했다.
- ③ 골드스미스는 손해를 무릅쓰고 대출업을 시작했다.
- ④ 골드스미스노트는 실제 돈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 ⑤ 금융업은 중세시대가 지나고 한참 후에 발전한 산업이다.

5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눈덩이를 굴려 눈사람을 만들었다.
- ② 머리 굴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 ③ 그렇게 바닥에 굴려 돌 거면 내놓으시오.
- ④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차를 세 대나 굴려?
- ⑤ 그는 집안의 재산을 잘 굴려 가세를 폈다.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미국 금융업의 시초를 설명하고 (나)는 영국의 식민지배가 금융업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가)는 지폐 한 장이 많은 양의 금화·은화와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된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보험사업의 시초를 커다란 배를 띄우는 일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다양한 금융 관련 산업의 기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금융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전한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7 (나)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이해한 사람은?

- ① A: 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 정책에 간여할 자격이 법적으로 생기는군.
- ② B: 전쟁 자금은 국채로만 마련할 수 있군.
- ③ C: 21세기 금융업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산업이군.
- ④ D: 배 한 척을 띄우려면 반드시 여러 사람의 투자가 필요하군.
- ⑤ E: 선주는 배가 온전히 돌아와도 일정 금액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었군.

차이에 적응하기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을 둘러싼 각각의 의미를 따져 보면 순환논법에서 벗어날 순 있습니다. 예컨대 생명을 '생명현상을 가진 것'으로 정의한다면 생명현상은 항상성(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 함), 조직화(세포로 구성됨), 물질대사(몸 안에서 필요한 물질을 변환함), 성장, 자극에 대한 반응, 생식, 상호작용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모두 생물학자들이 생물의 특징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미생물을 관찰하고 ㉠생명현상의 미시 현상들이 확인되면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명의 조직화라는 측면을 볼까요? 화학물질 몇 종류를 그릇에서 섞으면 복잡해 보이는 패턴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Alan M. Turing)이 반응-확산 모델을 통해 설명한 자기조직화 패턴입니다. 지금은 배아의 발달 과정, 표범의 줄무늬, 암세포의 성장과정 등 온갖 생물학적 문제를 같은 방정식으로 설명합니다. 생명만 있다고 생각한 구조를 단순한 화학반응으로 재현한다는 의미죠. 생명현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물질대사 과정도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있는 화학 현상입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생명체로 구분하고, 프라리온은 독성물질로 구분합니다. 이들은 각각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세포 기반 생명체의 기작을 빌려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명현상을 일으키지만, 어떤 경우엔 생명이고 또 어떤 경우엔 생명이 아닙니다. 이는 생물 목록으로부터 생명의 특징을 유추하고, 그 특징으로부터 다시 생물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하는 방법론 자체의 한계예요. 아마 이 세계 자체는 생명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돌멩이에서 프라리온, 바이러스, 단세포생물, 인간까지 갖가지 형태로 모든 존재가 가능성을 향해 연속적으로 뻗어 나가는 가운데 인간의 뇌가 범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마치 그 자체로서는 변함이 없는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에서 왜행성으로 분류된 것처럼요.

가장 작은 행성이던 명왕성도, 가장 큰 행성인 목성도 그 자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거대한 천체일 뿐입니다. 인류가 명왕성을 왜행성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명왕성이 갑자기 공전을 멈추지도 않고, 기분이 나빠서 지구를 침공할 준비를 하지도 않습니다. 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도, 사막이 초원과 만나는 지점도,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른의 경계도 비슷해요.

이건 인간의 언어와 개념 자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연속적이고, 복잡하고, 같지 않은 것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부르죠. 즉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인간들은 굳이 범주를 나누고 이름을 붙이죠.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추상화'라고 해요.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부 개라고 묶어서 불러요. 리트리버와 치와와가 같은 개라는 사실은 인간 뇌의 추상화 과정이 얼마나 유연한지 보여 줍니다. 추상화한 개념들은 또다시 상위개념으로 올라가 계층적으로 추상화됩니다. 이렇게 인간 뇌는 서로 다른 것들을 추상화·범주화하는 과정을 쉽게 거쳐요. 그런데 이를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추상화·범주화하는 과정이 컴퓨터엔 '어려운 문제'였죠. 현재 진행 중인 기계학습 혁명은 컴퓨터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했습니다.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특징은 명확하다.
- ② 인간의 뇌는 범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생명현상을 화학반응으로 재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 ④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독성물질이고, 프라리온은 생명체로 구분한다.
- ⑤ 컴퓨터는 인간 뇌의 추상화·범주화 과정을 처음부터 잘 처리했다.

9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핵심 과정은 물질대사구나.
- ② 프라리온은 생명체는 아니지만, 다른 세포 기반 생명체의 기작을 빌려서 유사한 ㉠을 일으키는구나.
- ③ ㉠은 현대 생물학에서 명확히 정의가 내려진 상태로군.
- ④ 민들레, 할미꽃, 진달래 등 다르게 생긴 꽃들을 ‘꽃’으로 묶어서 부르는 것을 ㉡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컴퓨터가 ㉡을 잘 수행할수록 시가 더 발달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겠군.

10 <보기>는 윗글에 나온 어떤 작용을 자세히 설명한 글이다. 그 작용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생물체는 섭취한 영양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어야 하고, 세포 및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합성해야 하며,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 작용은 이러한 세포 내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다.

- ① 항상성 ② 성장 ③ 생식 ④ 물질대사 ⑤ 조직화

정답 및 해설

인문·예술

1

②

[해설] 제시문 3문단에 따르면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은 파사석탑을 이루는 돌이 우리나라 돌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 말은 신뢰할 근거가 없다.

2

⑤

[해설] 제시문 1문단에 따르면 신화는 일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전부 사실은 아니다.

3

③

[해설] ‘신화를 노래한’의 ‘노래한’은 ‘가곡, 가사, 시조 따위와 같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으로 표현하다.’라는 의미다. 따라서 ‘자유를 노래한’에서 ‘노래한’은 ㉞와 문맥상 의미가 가깝다.

①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에서 ‘노래하는’은 ‘가사에 곡조를 붙여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음악을 사람이 부르다.’라는 의미다.

② ‘산새가 즐거이 노래하는’의 ‘노래하는’은 ‘새 따위가 지저귀다.’라는 의미다.

④ ‘운동을 노래하기에’의 ‘노래하기에’는 ‘같은 말을 자주 되풀이하여 즐라 대다.’라는 의미다.

⑤ ‘임금의 덕을 노래하는’의 ‘노래하는’은 ‘비유적으로 높이 찬양하거나 칭송하다.’라는 의미다.

사회·문화

4

④

[해설] ① 골드스미스는 부자들의 금화와 금괴를 보관해 주던 금세공사 출신 사람들이다. ② 지폐는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골드스미스가 적어 준 증표에서 비롯했다. ③ 골드스미스는 예금으로 내는 이자보다 대 출업으로 받는 이자가 큰 데서 많은 수익을 챙겼다. ⑤ 골드스미스에서 시작한 금융업의 발달은 중세시대부터 이루어졌다.

5

⑤

[해설] ㉠의 ‘굴러’는 ‘돈놀이 따위를 하며 돈을 운용하다.’라는 뜻의 동사 ‘굴리다’에 해당한다.

6

①

[해설] (가)는 금융업의 시초에 관해 설명하지만, 미국의 금융업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7

③

[해설] ① 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정책에 간여할 법적 자격이 생긴다는 설명은 본문에 없다. ② 전쟁 자금을 반드시 국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본문에 없다. ④ 배를 띄우는 데 여러 사람의 투자가 모이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많은 사람의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⑤ 보험에 가입한 선주는 배가 돌아오지 않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8 ②

[해설] ①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는 특징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 ③ 생명의 구조는 화학반응으로 재현할 수 있다. ④ 바이러스는 생명체, 프리리온은 독성물질로 구분한다. ⑤ 컴퓨터는 인간 뇌의 추상화·범주화 과정을 어려운 문제로 인식했다.

9 ③

[해설] 생명현상은 현대 생물학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

10 ④

[해설] 본문에서 물질대사를 '몸 안에서 필요한 물질을 변환함'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보기>의 내용과 들어맞는다.